

‘V13 정조준’ KIA... 정규리그 출격 준비 완료



2025 KBO 시범경기 4승 2무 2패...3위로 마감 “부상 없어 만족...팬트레이스 맞춰서 준비”

KIA타이거즈가 2025시즌 팬트레이스 돌입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KIA는 지난 8일부터 18일까지 열린 2025 KBO 시범경기에서 롯데자이언츠, NC다이노스, 두산베어스, 삼성라이온즈와 각각 2연전을 치렀다. 17~18일 SSG와의 2연전은 한파와 강설로 취소됐다. 그 결과 4승 2무 2패 승률 0.667을 기록, 3위로 시범경기를 마감했다.

이범호 감독은 총 8경기에서 주전과 백업 선수들을 고루 기용하면서 컨디션을 점검했다. 1~4선 발인 제임스 네일, 아담 울러, 양현종, 윤영철의 투구수와 구위를 체크했다. 5선발 후보였던 김도현과 왕동하 역시 선발 등판시키면서 기량을 점검했

고, 김도현을 5선발로 최종 낙점했다. 타선에서는 다양한 선수들을 활용하면서 새 얼굴 찾기에 힘썼다. 이로써 마운드와 타선의 업그레이드는 물론, 든든한 백업 자원으로 팀 템스가 두터워졌다는 분석이다.

이범호 감독은 18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올 시즌 시범경기에 대해 “캠프에 들어가기 전부터 시범경기까지 부상자 없이 개막에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한 목표였다. 생각했던 대로 부상도 없고 선수들 컨디션도 잘 올라왔다”고 평가하면서 “이제 곧 팬트레이스에 돌입한다. 개막전부터 잘 치를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KIA는 17~18일 SSG전 시범경기가 모두 끝

날짜로 취소되면서 정규리그 돌입 전 최종 점검에 아쉬움을 남겼다.

이에 이 감독은 “8경기를 치르면서 봐야 할 부분은 다 체크했다. 마지막 울러와 (양) 현종이가 던지는 건 못 봤지만, 그전에 많은 투구와 이닝을 소화했기 때문에 개의치 않는다”면서 “아차피 시즌 초반 100구를 맞춰서 던지는 선발은 없다. 80~90구를 보고 판단하는 거니 괜찮다. 다른 볼펜 투수들은 그전부터 이닝을 맞춰가면서 준비시켰다. 마지막 2경기를 못 치른 것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범경기 기간 이 감독은 팀 전체가 단단해졌다고 바라봤다.

이 감독은 “아주의 경우 백업 선수들이 준비가 굉장히 잘됐다. 고참선수들 역시 컨디션 조절을 하면서 수비와 타격에 대한 부분을 잘 점검했다”며 “김규성, 홍중표, 박재현, 윤도현 등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왕) 동하나 (김) 도현이 또한 잘 경쟁하면서 준비했다”고 이야기했다.

이와 “젊은 선수들이 잘 올라왔기 때문에 주축 선수들이 빠지더라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자원이 채워졌다”며 “감독으로서 마음이 편하다. 상황별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걱정되는 부분도 있다. 바로 새로운 외국인 타자 위즈덤 패트리아의 적응 여부다.

이 감독은 “투수는 적응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지만, 타자들은 투수별로 적응하며 대처하는 방식을 길러야 한다. 위즈덤이 새로운 선수로 합류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걱정되는 건 사실이다”면서도 “수비는 너무 잘한다. 확실히 1루에 서 있을 때 야수들이 공 던지는 실수도 거의 나오지 않을 만큼 든든하다”고 언급했다.

오는 22일 열리는 프로야구 개막전 엔트리에 대한 부분도 고민 중이다.

이 감독은 “시범경기가 다 끝났으니 개막 엔트리를 짜야 한다. 야수 쪽에서 백업하는 친구들 2~3명

자리를 두고 코칭스태프와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다”며 “NC다이노스와의 개막 2연전에서 어떤 선수가 더 나을지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올해부터는 정규리그에 변경된 ABS와 피치클러크 규정이 적용된다.

이 감독은 “ABS는 구장별로 다 다르다. 위아래나 양옆으로 치우치는 부분이 있다”며 “경기에 돌입했을 때 상황별로 어떤 스트라이크존이 형성돼 있는지 빨리 이야기를 나눠서 체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치클러크는 선수들이 무조건 한다고 마음을 먹으니 문제없이 진행되는 것 같다. 시범경기 기간 위반도 잘 안 나왔다”면서 “투수들의 경우에도 포수 시야에 시간이 보이기 때문에 사인도 준비하고 있다. 피치클러크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지난 15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삼성라이온즈와의 시범경기에서 승리한 KIA타이거즈 선수단이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종목별 생활체육 꽃 피운다

22일부터 120여개 대회 순차 개최...“다양한 스포츠 서비스 제공”

광주시체육회가 광주시민 건강증진 및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2025년도 종목별 각종 생활체육 대회를 시작한다.

18일 광주시체육회에 따르면 오는 22일을 시작으로 올해 종목별 생활체육 대회를 개최하는 종목은 축구 등 40여개 종목이다. 지난해 대비 30여개 대회가 늘어난 120여개의 대회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중 광주에서는 80개 대회가 개최되고, 나머지 40여개는 다른 지역으로 참가하는 대회로 진행된다.

시체육회는 올해 근대5종, 역도, 승마 등 엘리트 종목의 동호인을 확보해 생활체육 대회로 개최할 계획이다. 생활체육 종목에 국한하지 않고 종목별 고른 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부터 대회 운영 기간 안전평가 등 대회 평가계획을 수립해 생활체육 대회에 참가하는 동호인들이 안전하게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공정하고 투명한 대회 지원을 통해 체육행정의 질을 높이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전반적으로 대회 지원업무 개선

해 갈 계획이다.

전갑수 시체육회장은 “운동하기 좋은 시즌에 종목별 생활체육 대회가 개최됨에 따라 시민들이 안전하게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체육이 시민의 삶 속에 녹아들고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스포츠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체육 대회는 이달 22일부터 ‘제8회 협회장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를 시작으로 종목별로 개최될 예정이다. 시민들은 시장기(배), 협회장기(배) 대회를 비롯해 광주에서 열리는 전국규모대회까지 자신의 종목과 기량에 맞게 출전할 수 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문성민·김연경, 내일 정규리그 최종전서 ‘작별 인사’

문성민, OK와 흥경기서 은퇴식...김연경도 GS전서 은퇴 행사

올 시즌을 끝으로 코트를 떠나는 ‘배구 전설’ 문성민(39·현대캐피탈)과 김연경(37·흥국생명)이 20일 정규리그 최종전에서 ‘고별인사’를 한다. 문성민과 김연경은 2005년 뭇을 울린 한국프로 배구에서 남녀부 최고의 스타로 활약했고, 둘 다 은퇴를 선언해 20일 V리그 최종전이 정규리그에서 뒤는 마지막 경기다.

현대캐피탈은 20일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리는 OK저축은행과의 흥경기가 끝난 후 문성민의 은퇴식을 진행한다.

지난 13일 구단을 통해 은퇴 의사를 밝힌 문성민은 V리그에서 15시즌을 뛰며 남자부 강판스타로 활약했다.

문성민은 2008년 독일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했고 2010~2011시즌 현대캐피탈의 유니폼을 입은 뒤 한 번도 팀을 옮기지 않았다.

2015~2016, 2016~2017시즌 정규리그 최우수 선수(MVP)에 뽑혔고, 2016~2017시즌에는 챔피언결정전 MVP를 수상했다.

V리그 통산 성적은 18일 현재 380경기, 4천811득점으로 통산 득점 전체 3위, 서브 에이스(351개) 4위에 올라 있다.

그는 국가대표로 2006년 도하 아시안게임 금메달과 2010년 광주 아시안게임 동메달,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은메달을 목에 걸기도 했다.

현대캐피탈은 “문성민은 강력한 공격력과 리더십으로 팀을 이끌며 V리그를 대표하는 선수로 자리매김했다”며 “오랜 시간 팀을 위해 헌신한 문성민은 배구에 대한 열정과 프로정신으로 후배들에게 귀감이 됐다”고 설명했다.

문성민은 “배구팬의 사랑과 응원 덕에 오랜 시간 코트 위에 설 수 있었다. 선수 생활 이후의 인생 2막을 여

떻게 펼쳐갈 것인지에 대해서 구단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면서 “배구 저변 확대와 국내 프로배구 발전에 여러 방법으로 기여하고 싶다”고 전했다.

현대캐피탈은 구체적인 은퇴식 행사 이벤트는 공개하지 않았다.

같은 날 ‘배구 여제’ 김연경도 정규리그 최종전인 GS칼텍스와 원정경기에 출전한다.

흥국생명은 정규리그 1위를 확정된 뒤 김연경에게 3경기 연속 휴식을 줬지만, 지난 15일 한국도로공사와 흥경기부터 챔피언결정전을 대비해 김연경을 출전시켰다.

GS칼텍스와 경기는 지난 달 16일 IBK기업은행전부터 시작된 원정경기 ‘은퇴 투어’의 종착역이다.

앞서 김연경의 은퇴 투어는 4경기 연속 ‘만일 관중’을 불러 모으다가 김연경 출전 시간이 줄어들던 두 경기에선 매진 행진이 중단됐다.

하지만 15일 흥경기 때는 6천15석의 인천 삼산월드체육관 좌석이 가득 찼다.

김연경이 은퇴 후 진로에 대해 “지도자를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20일 GS칼텍스전은 올스타전 등 추억이 있는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김연경으로 서로 각별하다.

연합뉴스

‘당구 여제’ 김가영, 월드챔피언십 제패...7연속 우승

남자부는 환갑의 나이로 사이그너 정상 정복

‘당구 여제’ 김가영(하나카드·사진)이 시즌 왕중왕전을 제패하며 이번 시즌을 화려하게 마쳤다. 김가영은 17일 오후 제주시 한라체육관에서 끝난 ‘SK렌터카-제주특별자치도 PBA-LPBA 월드챔피언십 2025’ LPBA 결승전에서 김민아(NH농협카드)를 세트 점수 4-2(5-11 11-5 11-5 4-11 11-5 11-2)로 제압하고 우승 상금 1억원을 거머쥐었다.

이번 시즌 3차 투어부터 8차 투어까지 6개 대회에서 썩없이 우승을 차지했던 김가영은 월드챔피언십마저 정상에 올라 무려 7연속 우승을 달성했다.

또한 월드챔피언십에서는 2년 연속 우승 트로피를 품었다.

김가영은 지난 시즌까지 5번의 시즌에서 7번 우승했다가 이번 시즌에만 7차례 정상에 등극해 ‘김가영 무적 시대’를 열었다.

많은 상금이 뒤따랐다. LPBA에서는 최초로 단일 시즌 누적 상금 3억원(3억4090만원)을 돌파했고 통산 누적 상금을 6억8180만원으로 불렀다.



김가영을 상대로 첫 세트를 따냈다가 역전패한 김민아는 데뷔 첫 월드챔피언십 우승 문턱에서 너무 강한 상대를 만나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대회 한 경기에서 가장 높은 에버리지를 기록한 선수에게 주는 ‘월드챔피언십’ (상금 400만원) 여자

부는 조별리그에서 3.143을 찍고 LPBA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운 김세연(휴온스)에게 돌아갔다.

우승 직후 김가영은 “이번 시즌을 치르며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게 최대 수확이다. 이번 시즌은 최고의 결과를 냈지만, 아직 난 3쿠션에 대해 모르는 게 너무 많다. 실수를 줄여가는 게 목표”라고 소감을 밝혔다.

뒤이어 열린 남자부 PBA 결승에서는 ‘미스터 매직’ 세미 사이그너(튀르키예·웰컴저축은행)가 환갑의 나이로 정상에 올랐다.

사이그너는 같은 튀르키예 출신의 윙기 체네트(하이원리조트)를 만나 세트 점수 4-1(1-15 15-2 15-5 15-8 15-7)로 승리했다.

사이그너는 프로 전향 첫 대회였던 2023~2024시즌 개막전 이후 637일 만에 통산 2승째를 거뒀다.

우승 상금 2억원을 받은 사이그너는 누적 상금 3억5100만원을 기록했다.

남자부 웰컴저축은행(상금 800만원)은 조별리그에서 에버리지 2.762를 찍은 음오단나이(베트남·SK렌터카)에게 돌아갔다.

시즌 최종전을 마친 PBA는 19일 서울 그랜드워커힐 비스타홀에서 프로당구 시상식 ‘PBA 골든큐 어워드 2025’를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감한다.

연합뉴스



김연경